9년간 로컬브랜드 상권 200개 육성… 내년 12곳에 62억

서울시 '소상공인 활력회복 지원책'
인지도 높은 100곳 '강화지구'로
비활성화 100곳 '촉진지구' 지정

전통시장에 316억 들여 환경개선
화재공제보험 가입·전선보수 추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가 동네상권의 부활을 위해 로컬브랜드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특판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활력회복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머물고 싶은 동네상권 육성으로 골목상권 '활력회복' ▲매출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 판매전략으로 '소비심리회복' ▲금융부담을 줄인 안심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회복'을 골자로 한다.

먼저 시는 골목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에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로컬브랜드 상권 200개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남동, 성수동처럼 이미 인지도가 높은 지역 100곳은 '강화지구'로, 잠재력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100곳은 '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 촉진지구 10곳, 강화지구 2곳을 선정해 6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예산은 체류 인프라 조성, 브랜드 스토리 개발, 스타가게 육성, 상권 이벤트, 디지털 전환, 상인 역량 강화 등에 사용된다.

노후화된 시설과 주차 불편으로 시민 발길이 뜸했던 전통시장에는 316억원을 들여 쇼핑 환경을 개선하고, 상인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노후전선 보수(38억원)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특판전을 진행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지난 1일부터 2445억원을 발행했고,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원어치도 이달 중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서울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광역사랑상품권'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네이버, 쿠팡이츠, 위메프오, 놀러와요 시장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인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이 열린다. 소비자들은 시장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10% 페이백(5만5000명) 같은 다양한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돕는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시는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의 4무 안심금융'을 지난 6월 2조원에 이어 이달부터 3000억원을 추가 지원 중이다. 4무 안심금융은 5년간 최대 700만원 이상(1억원 대출 기준)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외에 고금리 다중채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1000억원), 대출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약 6000억원)을 지원하고, 폐업 기로에 선 소상공인 500명을 선정해 재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종료해야 할 경우 1인당 200만원 이내로 사업 정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단계적 일상회복 첫 주, 확진자 30% 폭증

서울시, 관내 확진자 총 5940명
65세 이상 19%→22%로 증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 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보다 30%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8일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10월 31일~11월 6일) 관내 확진자는 총 5940명으로 일평균 848.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10월 24~30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 662.1명보다 186.4명(28.2%)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코로나19 주간동향에 따르면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2주전 전체 확진자의 40.2%에서 지난주 40.7%로 0.5%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기간 확진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환자' 비율은 19.4%에서 22%로 2.6%포인트, 위중증 환자수는 평균 139.6명에서 156.6명으로 17명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2주전과 지난주 32명으로 동일했고, 사망률은 0.7%(10월 24~30일)에서 0.5%(10월 31일~11월 6일)로 0.2%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서울시 코로나19 환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된 사례는 2주전 2240명에서 지난주 3178명으로, 비율은 48.3%에서 53.5%로 각각 938명, 5.2%포인트 늘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최근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일상에서 개인 간 접촉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며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나 위중증 환자 수도 많아져 고령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집단감염 케이스는 ▲기타 다중이용시설 관련 236명 ▲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182명 ▲교육시설 관련 140명 ▲직장 관련 54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의료대응 현황 자료를 보면 7일 기준 관내 감염병전담병원은 22개소, 총 2160병상이며, 사용 중인 병상은 1687개로 가동률은 78.1%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345개 가운데 226개(65.5%)가 사용되고 있어 입원 가능한 병상은 119개가 남은 상황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새활용플라자 탐방 모습. /서울시

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연매출 100억 달성

서울시, 개관 4년만의 성과

서울시는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 9월 개관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4년 만에 입주기업 연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고, 누적 방문자 수가 37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은 폐기물에 디자인적 요소와 가치를 더한 새활용 제품 제작·판매, 재사용 물품 선별처리, 전자제품 수리, 시민체험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재 총 35개의 기업이 서울새활용플라자에 들어서 있다.

그간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소재 공급과 제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공간 제공, 온·오프라인 쇼핑몰 운영 등 새활용 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9월 기준 입주기업의 연매출액은 약 100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18년(75억원)과 비교해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동차 가죽시트를 활용한 가방을 만드는 '모어댄'은 BTS의 리더 RM이 백팩을 사회관계망(SNS)에 소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1인 가구의 디지털라이프' 크라우드 펀딩

서울디지털재단, 내달 15일까지 진행

서울디지털재단은 초기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도시 분야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스마트 제품·서비스 온택트 펀딩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재단은 '1인가구의 디지털 라이프'를 주제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기획전을 내달 15일까지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최소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이 가능하다.

이번에 펀딩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슬기로운 1인가구 라이프를 위한 생활백서 '나 없이 자취하지 마라'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LED 스마트 탁상용&벽시계 '루캄' ▲뛰면서 VR게임이 가능한 'VRFit 러닝머신 센서' ▲나를 지켜주는 기분 좋은 산뜻함, 모빌리티의 동반자 '그립'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AI 코딩 스마트 뮤직박스 ▲수의사가 만든 '반려동물 1분검사·상담'과 인식표 등 총 10개다.

현재 '스마트 선인장 가죽 쇼퍼백(전자기장 차단 기능 보유)'은 약 2000만원의 투자금을 모아 목표 금액 대비 2045%를 달성하고 있으며, IoT 탁상용 시계 '루캄'은 316%, 1인 가구 자취매니저 앱 '혼족의제왕' 생활백서는 286% 등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 중에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들 제품은 펀딩 기간이 종료된 후 제작 과정을 거쳐 후원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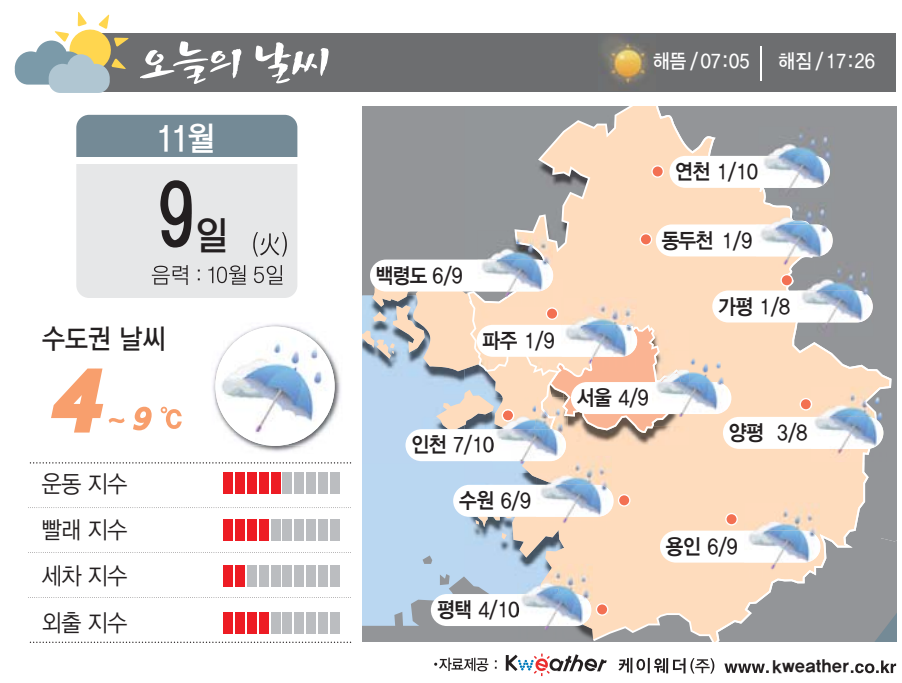
주거빈곤가구 아동에 서울시, 월 4만원 지원

서울시는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시는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아동주택바우처 도입으로 한부모와 아동 1명이 사는 2인 가구에는 보호자(8만원)에 아동 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김현정 기자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헝다, 977억 달러채 이자 또 미지급"…유예기간 돌입
▲ 미국 안보보좌관 "대만 정세 '현상유지가 이익'…中 도발 우려" /사진 뉴시스

▲ 일본, 오늘부터 사업 목적·유학생 등 외국인 입국 대폭 허용
▲ IMF "한국, 5년 뒤 국가채무 66.7%…증가속도 선진국 중 1위" /사진 뉴시스

▲ 바티칸, '비리 온상' 런던 호화 부동산 매각 임박…1600억원 손해 /사진 뉴시스
▲ 123년만에 열린 미 남부 흑인 학살사건 희생자 장례식